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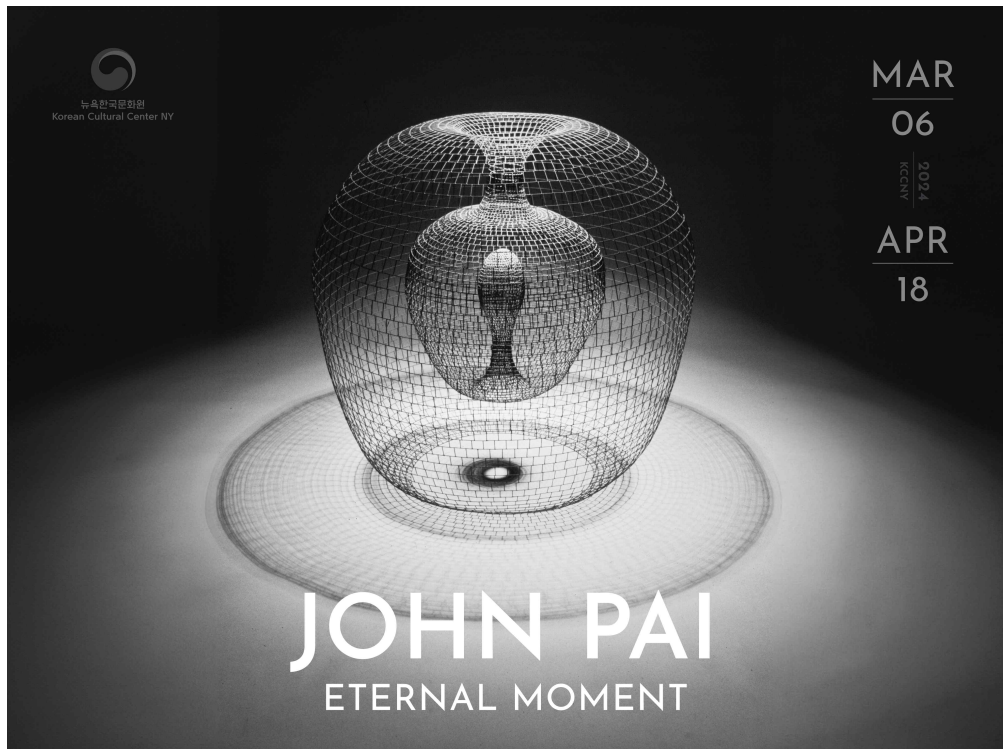
뉴욕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NY

2024.02.28.(수)
보도자료 2024-03
보도희망일시: 배포 즉시
담당자: 조희성 큐레이터
Tel: (212) 759-9550 ext.204
E-mail: hyangaoao@koreanculture.org

뉴욕한국문화원 신청사 개관 기념 조각가 존배 회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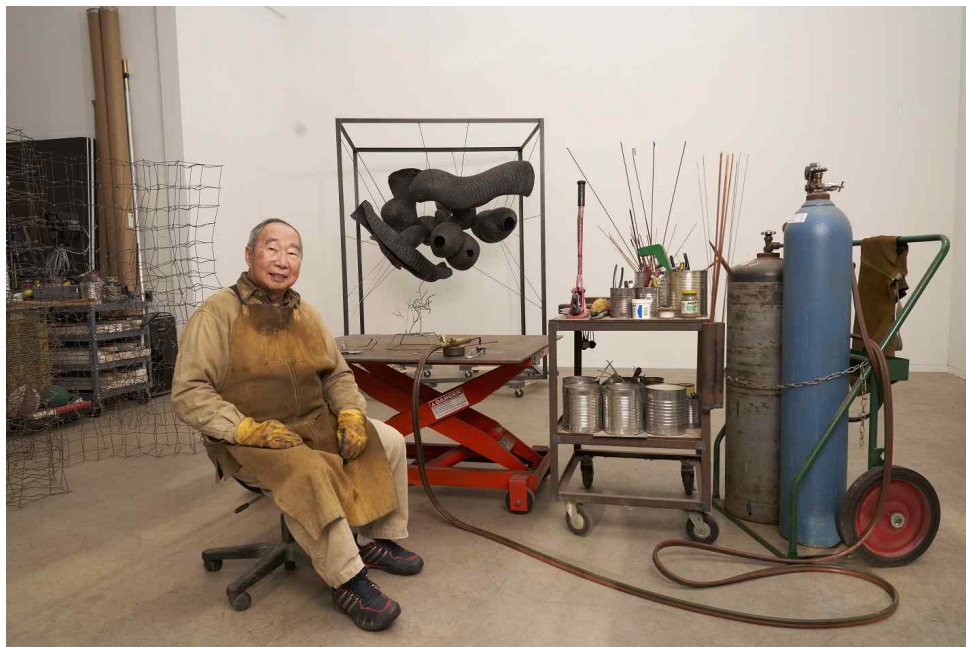
<John Pai: Eternal Moment>개최

- 3월 6일(수)부터 4월 18일(목)까지 뉴욕문화원 갤러리에서 개최 -
- 전시 개막행사 3월 6일(수) 저녁 6-8시, 뉴욕한국문화원 신청사 갤러리 -



뉴욕한국문화원(원장 김천수)이 새로운 보금자리로의 이전을 기념하며 그 첫 번째 전시로 오는 3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조각가 존배(John Pai/1937년생)의 삶과 작품세계 조명하는 특별전 <John Pai: Eternal Moment>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1937년 서울,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난 존배는 1949년 한국전쟁 직전 미국으로 오기 전까지 약 11년을 서울과 일산에서 유아동기를 보냈다. 존배는 당시의 상황을 조각조각 에피소드 위주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 시절 그의 잠재된 기억과 의식은 작가의 삶과 예술세계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만 11세의 나이에 홀로 미국의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유년기를 보낸 존배는 일찌감치 미술에 재능을 보이며 1952년 15세 나이에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고, 이후 1958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뉴욕 프랫인스티튜트의 디자인 학부에 입학했다. 작품 활동과 함께 졸업 후 1965년 프랫인스티튜트의 최연소 교수직을 수용해 2000년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매진했으며 1970~90년대 어렵고 힘들었던 뉴욕 한인 아티스트들을 지원하며 재미 한인 미술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기도 했다.



< 조각가 존배, 작업실 모습 >

뉴욕한국문화원 김천수 원장은 “1979년 설립된 뉴욕한국문화원이 약 45년 만에 뉴욕 맨하탄 32가 신축 건물로 이전하며 신청사 개원기념 전시로 존배 작가를 선정한 배경에는 이 같은 재미 한인 디아스포라 작가로서 그의 역사성과 대표성이 작용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전시는 무서운 속도로 발달하는 AI 테크놀로지와 진실성이 모호해지는 소셜미디어 범람의 시대에 오직 정직하고 순수한 예술가로서의 삶을 실천해 온 존배의 삶과 작품 세계를 통해 진정한 ‘인간성’과 ‘예술성’의 본질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전시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이번 전시는 최근 세계적인 예술서적 출판사로 꼽히는 리졸리(Rizzoli)에서 존배 작가의 일대기와 전작이 모두 수록된 250페이지 분량의 영문 모노그래프를 발간하는 등 미국 주류 미술계에서 존배 작가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개최돼 더욱더 의미가 깊다.

이번 존배(John Pai)의 회고전에는 1960년대 초반 구성주의에 영향을 받는 그의 초기 조각을 비롯하여 연대별 주요 작품 및 드로잉, 페인팅 작업이 소개된다. 기본 재료와 제작 방식은 동일하지만 철사의 크기와 질감, 색감을 달리하거나 구부리거나 뒤틀거나 하는 다양한 기법의 작품이 균형 있게 포함돼 있어 존배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구성되었다. 아울러 이번 전시에는 2021년 여름, 역사학자(Oral historian) Leyla Vural와 존배의 인터뷰 형식의 구술사(Oral History)가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공개돼 그간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보다 생생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의미를 더한다.

존배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시립미술관, 뉴욕의 얼터너티브미술관 등 한국 및 미국 내 주요 미술관 및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다.

(문의: 큐레이터 조희성 212-759-9550 내선 204)

###